

고집

요즘 아내로 부터 가끔 듣는 잔소리(?)가 “당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이 세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반론한다. “아니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잘 길들여진 노예처럼,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당신이 하자는대로, 시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며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살고있는데.. 정말 고집센 사람을 못보았군..” 또 다른 항의를 한다. “아니 이 정도 고집도 없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죽대도 없이 바람부는 대로 살면 참 좋겠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 경고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집은 신념이 아니라 <아집>이다. <고집>은 <편견>이 될 수 있다. <편견>은 <독선>을 불러온다. 노인이 나이드수록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습>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념대로 <관>이 되어 응고되어 과정이다. 나의 삶과 사상과 지식이 한쪽 방향으로만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과 <관용>이 필요하다.

현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종교, 이념과 상반되면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처음에는 공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불쌍한 눈으로, 그러다가 나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상종못할 눈, 나쁜 눈으로 바뀌다가 결국은 처죽일 눈으로 까지 변질된다. 우리 세대는 친일파 잔재들로 건국한 이승만 정부, 군사독재 정권시절 등을 거치면서 가장 정적들을 처단하기 쉬운 이념인 <빨갱이> 좌파이념에 길들여 있다. 또 세계 전쟁사에 가장 잔인한 전쟁들은 모두 <종교 이념>을 앞장 세웠다. <우리>와 <그들>만이 존재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 세대는 잘못된 이념이나 편협된 사상을 가지기 쉬운 태생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정의>를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함>일 것이다. 내 생각과 사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나와는 다른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서로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이다. 이것이 <관용>이다.

프랑스어인 <톨레랑스>는 영어의 <tolerance>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관용, 아량, 포용력>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情)>이라는 단어처럼, 한마디로 꼭집어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이 감성적 표현이라면 <톨레랑스>는 이성적 소리로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남을 존중하라.”라는 평범한 진리라고나 할까.

<톨레랑스>는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칙령’에서 유래된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은 왕의 종교와 일치해야 했었다. 프랑스 국교는 카톨릭이었는데, 15세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한다. 1562년 위그노들을 살해하기 시작함으로 ‘위그노 전쟁’이 시작된다. 이에 앙리 4세는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대신, 위그노(개신교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것이 낭트칙령이다. 유럽 최초로 한 국가에서 두개의 종교를 허락한 대변혁이다. 그러나 절대왕권을 잡았던 루이 14세에 이르자, 수십만명의 개신교도를 살해(순교)한다. 이 피의 역사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중단되지만, 세계 최대의 개신교 순교로 기록된다. 이런 피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이기에 모든 종교에 대하여 <톨레랑스- 관용>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다스린다. 이런 사상이 프랑스인들 저면에 흐르면서 <II세쥬 -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아집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톨레랑스>의 근본 이념이다. 하지만 요즘 신세대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내가 좋으면 되고, 내 새끼가 최고라는 의식은 물질 만능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이기도 하다. 또한 기독교의 본산인 유럽인들이 개신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얼까. 젊은이들이 개신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믿는 개신교 종파만 정통 적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으로 내치는 행위, 심지어 카톨릭도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어느 종파에 구속된 전유물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다원주의를 말함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부님에게도, 스님에게도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나 이외에는 모두 이단이고 우상이라면 마치 <빨갱이> 이론처럼 극히 편협되고 폐쇄된

사고방식이다. 관용의 반대 개념인 <불관용 (앵플레랑스)>은 지배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관용>은 <궁홀>이나 <동정>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흔히들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관용>은 <아량>과 같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가진자가 못가진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다. 전통적 계급사회에서 사용하는 <베품>이 아니다. <관용>은 계급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이며, 동등관계이다. 니체의 상대적 이론처럼 <주체>와 <객체>일 뿐, 언제든지 주체와 객체는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콜롬버스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 대륙 최초 발견자가 될 수 있지만, 원주민인 인디언 입장에서는 천인공로할 침략자가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흔히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관용>은 이해를 넘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나자나 힘도 없고 돈도 못벌고 고집만 센 <고집쟁이 늙은이>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 스스로 <고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텐데..